

# 인도주의적 간호(의료)와 Informed Consent(I.C.)

전 산 초

(초대 간호정우회장 · 본회 증경회장)

## 인도주의적 간호(의료포함)

원래 간호학이란 인간중심의 돌봄인데 새삼 인도주의적 간호(의료)란 또 무엇을 말하려는가 라고 반문하기 쉽다.

오늘날 진정한 인간중심의 간호는 증발되고 극히 직업적이며 기술적인 간호, 대화가 없는 메마른 대인관계, 그뿐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재리의 수단으로 또는 인력부족으로 오는 관리의 모순 등 인간의 건강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의 인간화를 논하게 되고 이에 적용할 인도주의적 간호론이 소리높여 주장되어야할 현상이다. 그러면 인도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래 중세기 기독교체제에 의해 고갈되었던 인간성을 회복하려던 humanism의 번역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 소외 현상을 주목하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현대 humanism은 人文주의, 人本주의, 人間주의, 人類주의, 人道주의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표현들 중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상을 추려보면 인간의 생명 가치 교양, 창조력 자유 그리고 공동운명체적 존재상(存在相)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동시에 정신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자는 사상체계라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간호란 이런 현대적 humanism에 입각한, 인격을 일깨워주는 간호 즉, Nursing Care for Integrated Humanism을 말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비인간화현상으로 야기된 간호의 현상을 극복하자는 인간성 지향의 간호의 목표, 내용, 방법 체계를 총칭하는 하나의 새로운 간호의 이데올로기(ideology) 즉 공론, 관념, 공의를 말한다.

간호는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룩되는 일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는 원조이기 때문에 단지 간호의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소개나 검토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하나의 지식이나 기술을 간호라는 자율적, 원조적 행위로서 살리려면 :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 또는 안락이란 무엇인가? 간호는 무엇에 목표를 두는가? 自身이 간호사라고 하는데는 어떠한 뜻이 있나? 등의 간호의 기본론에 관한 검토는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의학 또는 의학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초과학과 이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진보는 놀라운 현황이다.

이러한 “힘”으로 난치의 병이 치유되며 또는 완치는 안된다 하더라도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새로운 고통과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으로 간호사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 차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그 만큼 간호사가 이룩해야할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지기만 하고 있다.

科學의 발전은 인간에게 행복을 창출하지만 한편 인류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않을까. 이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인간성에 있다고 하겠다.

과학의 힘이 예리하고 크다고 하여 좋다고만 할 수 없다. 크면 클수록 인간성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간호에 있어서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 있어 人道主義의 간호 즉, 人間的 존재의 의미를 묻는 간호와 방법론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사려된다.

더우기 간호의 位相을 확립함에 있어서 더욱 더 간호의 철학적 방법론이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설명과 동의 (Informed consent: I.C.)

간호가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인도주의적 사상의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간호속에 Informed consent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Informed consent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Inform이란 어떠한 사실이나 형편을 알린다는 정도를 알려준다, 또는 통지한다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해주는 것 정보를 잘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Consent란 승낙한다, 응한다, 허가한다, 동의한다, 수락한다라는 뜻이다.

즉 Informed consent란 어떤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납득하고 동의한다, 혹은 승락한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간호를 주고 받는 현장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 또는 납득한 후에 동의한다든가 하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생각이나 사건이 바로 Informed consent자체의 문제이다.

본래의 Informed consent의 유래는 독일 나치스당의 의사들이 행한 인간生體실험을 재판하는 뉴롬부르크재판이 있던 후에 작성된 뉴롬벨크강령이라고 전해 온다.

미국(U.S)에서는 1973년에 환자의 인권장정이

선포되고 환자의 권리로서 필요한 정보를 의료요원으로부터 받을 권리로서 informed consent를 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1914년 의료사고소송판결이 시작되고 수술이나 중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대한 동의를 환자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게 되었으나 1950년대 중반기부터 1960년대 후반기에 걸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원칙이 확립되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informed consent의 요건이 法制化되었다.

Informed consent가 세계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제18회 세계 의사회총회가 Helsinki에서 개최되었을 때 채택된 Declaration of Helsinki 1964와 1975년 TOKYO에서 개최된 29회 세계 의사회총회 수정안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Biomedical Researcher들에게 권고하기 위해 작성된 이 내용이 전세계 의료인을 위한 새로운 의미로서의 의료윤리의 기준으로서 존중하게 되었다.

Helsinki 선언이후 의료 및 건강관리 현장에서 informed consent가 “충분한 설명을 받고나서 환자의 동의와 승락”으로서 대상의 인권 존중과 자결정권이 함께 논하게 된 것은 미국 대통령 위원회보고가 출간되면서 부터일 것이다.

### Informed consent를 다룬 위원회 보고서

“의료에 있어서의 의사(意思)결정 (Making Health Care Decision)”에 의한 조사결과와 법률과 건강관리와 의료에 있어서의 informed consent의 역사, 건강관리와 의료봉사의 개념 변화, 대상자와 보건의료 요원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 변화와 또한 informed consent의 가치관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 Informed consent에 관한 미국 대통령 위원회 보고

1) I.C.의 이론의 기본은 이미 법에 있으나 이는 윤리적인 성격을 형유하고 있다.

2) 윤리적으로 유효한 동의(同意)란 상호존중

과 참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협력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마치 치료의 위험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식의 내용을 암송하는 것과 같은 형식은 아니다.

3) I.C.에 관한 문헌은 지적(知的)이며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어떠한 health care의 현장에 있어서나 모든 환자(대상)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나 선택 그리고 개인을 존중한 Communication이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이상(理想)이라고 한다.

4) I.C.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이 스스로의 개인적 가치관에 기본한다.

스스로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치료와 health care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대상)의 선택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첨가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선택에 응한다는 것이며, 인정된 의료행위의 관건을 파괴한다든지 의료전문가로서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도덕적 신념을 침해하는 경우이며 또는 대상(환자)이 제3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 강제력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어보이는 경우 한정된 자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대상자(환자)는 의료요원에 의하여 health care service의 제공을 주장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自身の 결정과 대상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극히 희귀한 case에 있어서는 대상의 능력 결여때문에 health care에 관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인 능력이 결여된 사람(個人)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그 타당성있는 방법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능력은 하나 하나의 의사결정마다 다시 살펴보고 확인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체인간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경의를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5) Medical team 혹은 Health team member는 단지 그 정보가 대상에 대하여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끝내버릴 수는 없다.

6) 상호존경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 당면해서 적합하게 책임을 분담하여 행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개체의 Medical team member의 책임이다. 다시말하면 병원이라는 보건의료시설은 그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重要)한 역할을 갖고있다.

7) 환자(대상)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자신의 치료를 결정하는데의 도움이될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8) 의료요원과 환자와의 사이의 관계개선은 본래 법률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의료요원의 교육, 시험, 연수(研修)를 통해 informed consent에 관한 간호이념을 개선함으로써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

9) 가족은 때로는 환자가 자기 병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든가 또는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족의 관여는 개개인의 환자의 privacy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려할 것이다.

10) 의사결정을 환자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와 간호에 대한 의료비에 관하여 환자와 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가산되어야 한다.

11)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여러가지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결정은 가능한한 환자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환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결정을 충실히 반영한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결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병원 및 보건의료시설은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

기 위한 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일을 고려해야만 한다.

주 재판소나 주 의회는 사람이 의사결정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health care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또는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 care에 대하여 지시를 줄 수 있게 사전지시(living will)에 특별법규를 작성하는 일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어 :

Informed Consent는 단지 “환자에게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며 대상자(환자)의 문화적 특성이나 의료요원이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관습적 태도를 주축으로 하는 논의보다는 본질적으로 의료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원점에서서의 간호는 informed consent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통감하는 일이다.

### I.C.의 개념에서 배워야 할 점

일반적으로 I.C.의 개념을 생각할 때 적어도 누군가가 그런 생각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호나 의료인의 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원리에 오히려 폭 넓게 일반적인 기초에 있다.

대등한 관계가운데서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간호나 의료의 현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참된 의미에서의 informed consent가 존재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현재 간호나 의료 현장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I.C.는 주는자 측(의료인)에서의 설명과 동의(同意)에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 놓고 발생하는 의문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의사대 환자의 관계, 의사대 간호사의 관계 그리고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인간관계에서 성립되고 있는가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 자신은 간호를 제공할 때는 환자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마련

이고 또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염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 의료요원의 마음속에도 무의식중에 “건강한 사람의 오만”의 감정이 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다.

의료를 주는 측과 받는 측, 어쩌다 보면 강자와 약자라는 관계에 떨어지기 쉬운 관계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더욱 환자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궁극적으로는 한사람의 고독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싶다는 각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 해두고 싶은 것은 I.C.개념이 communication의 기본으로서 존재하는것 이라던 당연하게 의료요원(주는자)측에서나 환자(받는자)측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말이다. 즉 간호를 하는 측에서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환자측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한 후에 시술(caring)이나 curing을 한다는 것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간호 현장에서의 informed consent

간호현장(임상)에서의 informed consent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간호를 직접받았던 환자에 경우를 되새겨 보며 생각해 보자. 즉, 간호사가 그이 대상인 환자를 인도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환자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informed consent의 이치일 것이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 그랬었구나」하고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진정으로 간호에 있어서 informed consent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도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Terminal care의 개념은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사느냐?” 등의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가치관 변화의 와중에서도 꽤 적지 않은 뜻있는 의사들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와중에서 간호사는 본래의 기능으로서의 전인간호를 시행하려는 간호사의 뜻은 굉장히 큰것이라 하겠다.

의료를 담당한 직업중에서 의사의 일은 환자의 진단을 밝히고저하는 일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환자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된다든지 또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 환자는 어떠한 기능을 해나가야만 하는지? 생각컨데 그런때야 말로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에서 「I.C.」의 개념에 기초하여 Communication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는 medical team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team member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른 기능이 잘 발휘되고 활용되는 일이 보다 양질의 의료를 실천하는데 연결된다는 인식이 정립되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간호사는 그이 주체적 역할로서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납득될 것이다. 그럼으로 그곳에 「I.C.」의 사고와 방식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의사에게 간호사의 독자적기능을 이해해주기를 원한다면 매일의 주체적인 장면에서 반영하는 간호사의 행동, 역할 등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환자의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간호사 자신이 Assessment하여 의사에게 전하는 필요성이 그들에게 인정되면 의사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내는 일이 그 「I.C.」를 위한 첫 발걸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medical team의 일원으로서의 간호의 역할을 인식하고 역할 수행을 이룩하기 위한 능력이 몸에 배어야 이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I.C.」를 간호속에 어떻게 발붙이게 할 것인가.

임상간호에 있어 첫째는 환자의 병상이나 그의 생활을 쾌적하게 한다는 역할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이 요구된다.

경험이 적은 간호사에게는 「I.C.」의 개념을 지지 한다해도 실제로 실천하려면 그 능력이 습득되어 있지 못하다. 그 능력을 획득하려면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환자가 나타내는 반응, 말, 행동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 의미를 계속하여 관찰하고 생각해보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I.C.」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Nursing team이 환자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나 말 행동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숨은 뜻을 탐구하고 서로가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잠재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보다 빠르게 습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간호의 큰 기능이며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I.C.」란 말 자체는 새 말이지만 그 개념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간호학계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환자중심의 간호」 「인간대 인간의 간호」 「전인간호」 또는 「환자에 대한 Counseling의 역할」 「Patient Education」 「수술전 간호」 등의 개념속에도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다.

단,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새롭게 임상현장을 바라볼 때 확실히 Informed Consent 「설명 그리고 동의」라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 말(언어)을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스스로의 간호실천을 돌아보고 미래의 인도주의적 간호를 전망하고자 한다.▣